



16면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서
들어보는 새해 의정활동 포부

전주매일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음 11월 23일) 제26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신축년, 생태문명시대 선도하는 원년”

전북도, 올해 도정 운영방향 발표

▶ 관련기사 2면·3면

기후변화 대응·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등 '9대 시책'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등 '11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북도가 2021년 신축년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신년 도정운영방향을 밝혔다. 감염병 예방, 재난안전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는 한편, 삼라농정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과 전북형 그린·디지털 뉴딜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특히 '안정되고 평안해야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한 '영정치원(寧靜致遠)'의 뜻을 토대로 코로나19와 재난을 비롯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이루면서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앞장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담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와

홍수 등 유례없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국가예산과 도예산 8조원 동시 개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새만금 대기업(SK건설·GS글로벌) 유치 등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올해도 이 여세를 몰아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고 청정 자연, 미래 신산업, 삼라농정, 생태여행체험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9대 도정 역점시책을 포함해 추진해 도정 완성도를 높이고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추진할 '9대 도정 역점시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실현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한 전북 구현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으로 희망의 전북 토대 구축 ▲전북형 그린, 디지털 뉴딜 적극 추진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삼라농정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 ▲역사문화, 생태여행체험 활성화 ▲복지체계 구축과 균형있고 따뜻한 전북 구현 ▲본격적인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개발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제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오른쪽)는 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2021년 전라북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도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11대 핵심 프로젝트'로 ▲탄소중립 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 본격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 ▲군산 등 전북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과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 ▲아시아스마트농생명 벨리 조성 ▲정정관광 전북형 여행,

체험콘텐츠 강화 ▲새만금세계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준비 철저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가속화 ▲생활의 과학화와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이같은 정책들이 조기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도정의 안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길고 지루한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 생태문명시대 선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신계숙



장병호



박용자



정상택



황권주



최병집



최훈식



박영봉

전주시 국장급 인사 단행

전주시가 1월 6일자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 발령되는 국장급 인사는 총 9명으로 이들 중 신계숙 전 사회연대지원단장과 장병호 전 맑은물 사업본부장이 각각 완산구청장과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 외 박용자 기획조정국 총무과,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집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장, 박영봉 생태도시국장 직무대리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송방원 전 국장은 공로연수에 나서게 된다. /김윤상 기자

본사 인사

▲고 병만
임 : 부국장
명 : 군산취재본부

(1월 6일자)

동(銅) 생산체계 복원의 '핵심'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시굴조사서 제동로 추가 확인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제동로 전경

어지지 않아 아직 정확한 구조와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지난 발굴조사에

서 드러난 제련로의 현황과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동로 동쪽에 위치한 폐기장에서는 숯, 슬래그, 노벽편 등이 확인되는데, 오랜 경작활동으로 대부분 훼손돼 높이 0.4m 가량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사기관과 학계에서는 이번 추가로 확인된 제동로와 폐기장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동 생산체계와 제동로 구조 복원을 위한 핵심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전북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시굴조사에서 제동로(製銅爐)가 추가 확인됐다.

제동로는 동광석에서 동을 1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제련로(製銅爐)로, 국내에서 처음 조사되면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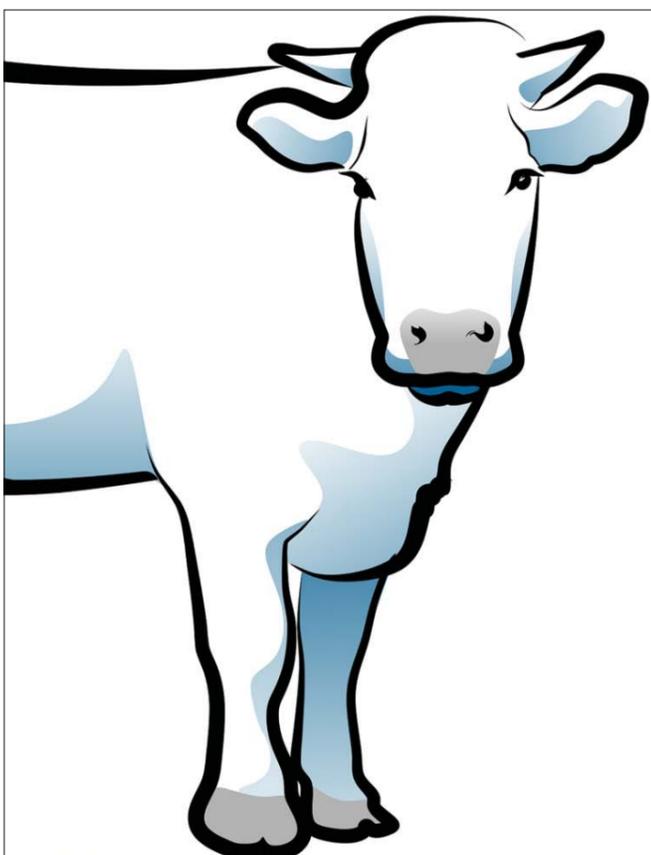
또한 슬래그(Slag), 노벽편(爐壁片) 등 동 부산물로 구성된 대형 폐기장

은 국내에서 확인된 동 생산 폐기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시굴조사는 기존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유적의 존재범위와 제동로 등 유구의 추가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조사결과 제동로와 폐기장이 추가로 확인됐다.

석재와 점토로 축조된 제동로는 강한 화기(火氣)로 인해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주변에 슬래그와 노벽편이 다수 산재한다. 발굴조사가 이루어



신축년
새해가 왔소!
코로나 없소!
건강하소!
복받으소!

謹賀新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